

은둔설계자의

# 문장해부학

-문장이 우릴 죽이고 있었다-

수능 비문학

12개 중요 문장 패턴 완전 해체

전범진 저

동적독해 시리즈 전권 구성

- VOL.01 비문학 독해공학
- VOL.02 비문학 독해공학 워크북
- VOL.03 문장해부학★
- VOL.04 요약이 독해다
- VOL.05 문학해부학
- VOL.06 문학해부학 워크북

# 저자 소개

---

## 전범진

오랫동안 국어·논술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능 국어에서 통용되는 접근 방식, 문제 해결의 도구들이 과연 적절한가. 지문을 읽고 선지에서 막히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제대로 된 언어를 주고 있는가.

그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 동적독해 시리즈입니다.

《비문학독해공학》은 지문의 흐름을 T-R 구조와 문단 간 관계로 읽는 법을 체계화한 책입니다. 《문장해부학》은 그 9장을 확장·심화한 결과물입니다. 수능 비문학 지문에 반복 출현하는 7대 문장군을 정밀 분석하여, 출제자가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오답 설계 구조를 역추적한 12개 핵심 프로토타입으로 정교화하고, 실제 고난도 수능 기출 문항에 직접 적용해 해체합니다. 막연하게 '틀리는' 선지에 왜 틀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 머리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 하이데거*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언어 밖에서 사유할 수 없다.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의 절반은 보이지 않는다.

수험 지문도 마찬가지다. 출제자는 언어로 논리를 짓는다. 그 집의 구조가 문장 패턴이다. 패턴을 모르면 집 안에 들어가도 길을 잃는다. 내용은 읽었는데 선지 앞에서 막히는 것이 그것이다. 지문을 이해한 게 아니다. 구조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그 집의 설계도를 읽는 것이다. 설계도가 보이면 출제자가 어디에 함정을 놓았는지가 보인다. 읽기 전에 오답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강의실에서 매년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분명히 읽었는데 틀리는 학생들. 왜 틀렸는지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지문에서 또 같은 이유로 틀렸다. 20년 동안 그 장면을 봤다. 문제는 독해력만이 아니었다. 문장의 패턴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인간은 패턴으로 인지과부하를 해소한다. 처음 보는 구조는 작업기억을 전부 소모한다. 패턴을 알면 구조 인식 비용이 0에 수렴한다. 절약된 자원이 오답을 본다. 패턴이 보이면 선지를 읽기 전에 오답의 위치가 보인다.

공부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다. 시험도 마찬가지다. 수능 비문학 지문에는 12개의 중요 문장 패턴이 반복된다. 출제자는 이 패턴을 비틀어 오답을 만든다. 오답을 만드는 방식도 패턴이다. 이 12개는 자연언어의 논리 구조를 완전히 분류한 것이 아니다. 수능 출제자가 반복적으로 설계하는 오답 구조를 역추적한 핵심 프로토타입이다. 이 책은 그 12개 패턴을 훈련시킨다. 독해가 아니라 예측의 훈련이다.

*이 책은 비문학독해공학의 설계도 체계 위에 있다. 독해공학이 지문의 거시 구조를 다뤘다면, 이 책은 문장의 미시 구조를 다룬다. 독해공학을 먼저 읽었다면 더 빠르게 흡수될 것이다. 읽지 않았더라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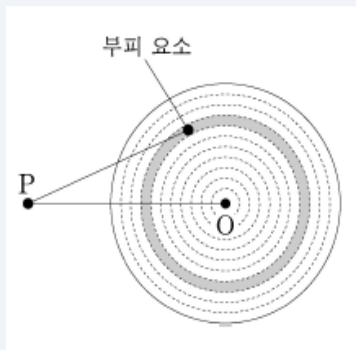
## 이 책이 왜 필요한가 — 2019수능 국어 31번

정답률 18.3%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7~32] 세트 | 과학·인문 융합 지문

찍을 확률(20%)보다 낮았던 문항. 평가원이 이례적으로 난이도 조절 실패를 공개 인정했다. 패턴이 보이면 30초다.

A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보 기>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31번 (3점)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의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③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⑤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 패턴으로 보면

이 지문은 2-B 연쇄 인과형이 뼈대다. 「부피 요소 = 질점 → 구 껍질 = 질점들의 집합 → 구 껍질의 만유인력 합 = 중심 질점의 만유인력 → 구 전체도 동일」 이 T-R 연쇄가 <보기> (1)→(2)의 전체 구조이고, 지문 [A]는 그 결론이다. 정답 ②의 함정 구조: 지문이 설정한 비교 틀 = 「한 천체(구) 전체 → 외부 질점 P」. 즉 천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놓고 그것이 외부 질점에 미치는 힘을 다룬다. ②는 「태양 중심의 질점 → 지구 전체」와 「지구 중심의 질점 → 태양 전체」의 비교인데, 이것은 지문의 비교 틀(천체 전체 → 외부 질점)이 아니라 질점 → 천체 전체 방향이다. 작용·

반작용( $F=F'$ )으로는 물리적으로 성립하지만, 지문이 허용한 비교 틀 밖의 이야기다. 지문이 다루지 않는 비교를 정답 근거로 쓰면 지문 외 지식 의존이 되고, 이 문제는 그 함정을 노렸다. 물리 지식과 관계없이: 지문의 비교 틀에서 벗어난 선택지를 찾으면 ②가 보인다. 패턴이 보이면 이 문항은 30초다. 정답률 18%짜리가 30초 문제로 바뀌는 순간이다.

**핵심 패턴:** [2-B] 연쇄 인과형 / **오답 유형:** 연쇄 이탈 + 방향 역전 / **정답:** ②

---

-은둔설계자

# 목 차

머리말.....	3
이 책에 대하여.....	8
기초 개념 브리핑.....	9

## **PART 1 무기 지급 — 12개 패턴 레퍼런스**

<b>그룹 1 범위 제한형 (울타리 문장)</b> .....	14
1-A 충분조건형.....	14
1-B 필요조건형.....	15
1-C 쌍방조건형.....	16
1-D 가정 시뮬레이션형.....	17
1-E 전제 붕괴형.....	18
<b>그룹 2 관계 설정형 (화살표 문장)</b> .....	20
2-A 직접 인과형.....	20
2-B 연쇄 인과형.....	21
2-C 역순 서술형.....	22
2-D 대조형.....	24
2-E 유추형.....	24
<b>그룹 3 범주 확정형 (경계 문장)</b> .....	27
3-A 폐쇄 정의형.....	27
3-B 포함 관계형.....	28

## **PART 2 단일 문장 해체 훈련 — 40문장**

Lv.1 단일 패턴 — 13문장.....	37
Lv.2 복합 패턴 — 14문장.....	42
Lv.3 만연체 × 복합 패턴 — 13문장.....	48

## **PART 3 기출 수준 지문 완전 해체 — 10편**

01 효소와 기질 특이성.....	59
02 브레턴우즈 체제와 달러 패권.....	61
03 데이터 이동권과 정보 자기결정권.....	63
04 헤겔의 변증법과 역사 발전론.....	65
05 PCR과 DNA 복제 원리.....	67
06 예약의 법적 성격과 완결 계약.....	69

07	노자의 도와 두 가지 해석 .....	71
08	양자역학과 측정 문제 .....	73
09	아도르노의 예술론과 문화 산업 비판 .....	75
10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	77

### **PART 3.5 직접 해체 — 실전 기출 2편+ 정답**

T-01	확장 인지와 지각 — 기능주의·설·로랜즈·객관주의 .....	80
T-02	데이터 이동권과 빅데이터 보유·비용 절감 .....	85

### **PART 4 최신 수능 기출·모평 분석 — 20편 + 정답**

01	과두제적 경영의 구조와 보완책 .....	90
02	디지털 영상과 리얼리즘 .....	94
03	기회비용·딜레마 의사결정 .....	98
04	공공 저널리즘과 사례 적용 .....	102
05	수소 운반체와 암모니아 분해 .....	106
06	법 모델과 임대차 보호 .....	110
07	접근제어와 비바 모델 .....	115
08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	119
09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	123
10	크라카우어·제임슨·수빈의 SF론 .....	127
11	오디오 압축과 지각부호화 .....	131
12	결측치·이상치·A기법 .....	135
13	경마식 보도 .....	139
14	왕안석·오징의 도 해석 .....	143
15	공포 소구와 위협·효능감의 조합 .....	147
16	열팽창·액추에이터 .....	151
17	에이어·뱅크스의 도덕 문장 논쟁 .....	155
18	블록체인 기술의 세 가지 특성 .....	159
19	바쟁의 리얼리즘 vs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	163
20	고체 촉매와 흡착 세기·촉매 활성의 관계 .....	168

### **부록 12개 패턴 즉시 식별 카드**

그룹 1	범위 제한형 — 1-A~1-E .....	172
그룹 2	관계 설정형 — 2-A~2-E .....	173
그룹 3	범주 확정형 — 3-A~3-B .....	174

# 이 책에 대하여

## 누가 봐야 하는가

독자	증상
수능 1등급 직전에서 막힌 수험생	지문 내용은 파악되는데 선택지 2개에서 항상 틀린다
독해 전략서를 여러 권 읽었지만 점수가 안 오르는 독자	전략은 알겠는데 실전에서 적용이 안 된다

공통점은 하나다.  
읽었는데 틀리는 사람.

## 이 책의 구조

PART	구성	목적
기초 브리핑	T-R 전이·결속구조 ·Shadow Tracker	이 책의 언어를 익힌다
PART 1	12개 패턴 레퍼런스	무기를 지급받는다
PART 2	단일 문장 해체 40문 장	근육을 만든다
PART 3	기출 수준 지문 10편 해체	실전 감각을 익힌다
PART 3.5	직접 해체 — 실전 기 출 2편	처음으로 혼자 푼다
PART 4	수능 기출 20편	기출에 적용한다

**부록**

12개 패턴 즉시 식별  
카드

언제든 꺼내 쓴다

# 기초 개념 브리핑

독해공학을 먼저 읽었다면 이 섹션은 건너뛰어도 좋다.

이 책은 세 가지 개념을 도구로 사용한다.

T-R 전이 / 결속구조 / Shadow Tracker

이 세 가지를 모르면 PART 1의 패턴 설명 절반이 안 들린다.

3페이지만 읽으면 된다.

## ① T-R 전이 — 문장이 흐르는 방향

모든 문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 T (Theme · 구정보)

독자가 이미 아는 것. 앞 문장에서 나왔거나 상식적으로 전제된 것.

### R (Rheme · 신정보)

독자에게 새로 전달되는 것. 문장이 실제로 말하려는 것.

문장이 이어질 때, 앞 문장의 R(신정보)이 다음 문장의 T(구정보)로 바뀐다. 이것이 T-R 전이다.

### 예시

효소는 기질과 결합한다. → T: 효소 / R: 기질과 결합

이 결합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 T: 이 결합(앞 문장의 R) / R: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 T: 활성화 에너지 / R: 반응 속도 증가

→ R이 다음 T가 되는 연쇄가 곧 2-B 연쇄 인과형의 골조다.

## ② 결속구조 — 문장과 문장을 묶는 신호

지문의 문장들은 무작위로 나열되지 않는다. 신호어가 문장 간의 관계를 명시한다. 이 신

호어를 포착하는 것이 패턴 식별의 시작이다.

관계	신호어 예시	해당 패턴
조건 (충분)	~하면, ~할 경우	<b>1-A</b>
조건 (필요)	오직 ~때만, ~이어야만	<b>1-B</b>
동치(쌍방조건)	~할수록 ~하고 ~할수록	<b>1-C</b>
가정	만약 ~라면	<b>1-D</b>
전제	~을 전제로 하여	<b>1-E</b>
직접 인과	~로 인해, ~때문에, ~한 결과	<b>2-A</b>
인과 연쇄	~이 ~으로 이어지고, 결국	<b>2-B</b>
역순 서술	~할 수 있었던 것은, ~때문이다	<b>2-C</b>
대조	반면, ~와 달리	<b>2-D</b>
유추	~처럼, ~와 마찬가지로	<b>2-E</b>
정의	~란, ~이다	<b>3-A</b>
포함	~의 일종, ~에 속하는	<b>3-B</b>

### ③ Shadow Tracker — 숨은 주어를 찾아라

한국어 지문은 주어를 자주 생략한다. 특히 학술·수험 지문일수록 주어 생략이 심하다. 주어가 없으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확정할 수 없으면 선택지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Shadow Tracker는 생략된 주어를 T-R 전이를 역추적해서 찾는 기술이다.

#### Shadow Tracker 3단계

Step 1. 주어가 생략된 문장을 확인한다.

Step 2. 바로 앞 문장의 R(신정보)을 찾는다.

Step 3. 그 R이 생략된 주어의 실질 내용이다.

예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여, 생성물이 신속하게 만들어진다.'

→ '만들어진다'의 주어 생략. 앞 문장의 R = 반응 속도 증가.

→ 실질 주어 = 반응 속도 증가가 촉진하는 [생성물 합성 과정]

**이 세 가지가 이 책 전체의 언어다.**

T-R 전이 → 문장이 어디로 흐르는가

결속구조 → 신호어가 무슨 패턴을 예고하는가

Shadow Tracker →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가

PART 1부터 이 언어로 읽어라.

# 문장해부학

- 문장이 우릴 죽이고 있었다-

수능 비문학 · 12개 중요 문장 패턴 완전 해체

---

**PART 1** 무기 지급 — 12개 패턴 레퍼런스

# PART 1 무기 지급 — 12개 패턴 레퍼런스

---

*이 파트는 읽는 챕터가 아니다. 언제든지 돌아보는 지도다.*

**12개 패턴이 이미 보인다면 PART 3으로 직행하라.**

각 패턴은 정의 · 신호어 · 오답 패턴 · 예시문 해체 순으로 제시된다.

예시문은 기출 수준으로 창작된 문장이다.

# 그룹 1 — 범위 제한형 (올타리 문장)

공통 구조: '언제, 어떤 경우에만'이라는 올타리를 친다.

오답은 전형적으로 올타리를 무너뜨리거나 넓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 ★ 조건문의 네 가지 쌍둥이 — 원명제·역·이·대우

지문이 'P이면 Q이다'라고 말할 때, 출제자는 이 명제를 네 가지 방향으로 비튼다. 어느 방향이 성립하고 어느 방향이 오답인지를 알아야 선택지를 끊을 수 있다.

이름	형태	원명제와 동치?	시험 활용
원명제	$P \rightarrow Q$	— (기준)	지문이 직접 제시한 명제
역	$Q \rightarrow P$	✗ 불성립	1-A·1-B 오답의 핵심 소재 — '인과 역전' 오답이 이 형태
이	$\neg P \rightarrow \neg Q$	✗ 불성립	역과 항상 동치 — 동일한 오답 설계 방식
대우	$\neg Q \rightarrow \neg P$	☑ 성립	원명제와 항상 동치 — 정답 근거로 직접 활용 가능

## 패턴별 적용

패턴	원명제	역·이 (오답)	대우 (정답 근거)
1-A 충분조건형	$P \rightarrow Q$	$Q \rightarrow P$ ✗	$\neg Q \rightarrow \neg P$ ☑
1-B 필요조건형	$Q \rightarrow P$	$P \rightarrow Q$ ✗	$\neg P \rightarrow \neg Q$ ☑
1-C 쌍방조건형	$P \leftrightarrow Q$	역·대우 모두 성립 ☑	한 방향만 허용하는 선택지가 오히려 오답

## ▶ 실전 공식

역( $Q \rightarrow P$ )과 이( $\neg P \rightarrow \neg Q$ )는 일반적 단방향 조건문에서 불성립 — 수능 비문학 조건문 선지에서 전형적 오답. 단, 역 방향 선지를 만났을 때 바로 오답으로 표시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문장이 단방향 조건문인가, 아니면 1-C 쌍방조건인가. 정의문("A는 B이다" 형태)은 겉으로 단방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 \leftrightarrow B$ 가 동시에 성립하는 1-C 구조다. 쌍방조건( $P \leftrightarrow Q$ )은  $P \rightarrow Q$ 이면서  $Q \rightarrow P$ 도 성립하므로 역 방향 선지가 오답이 아니다. 즉 역이 "예외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패턴 분류가 1-C여서 역 방향도 동치인 것이다. 선

지를 보는 순서: ① 지문 문장이 단방향( $P \rightarrow Q$ )인가, 쌍방( $P \leftrightarrow Q$ )인가 확인 → ② 단방향이면 역이 선지는 전형적 오답 / 쌍방이면 역 방향도 정답 근거 가능  
 대우( $\neg Q \rightarrow \neg P$ )는 원명제와 논리적으로 동치 — 선택지가 대우 형태이면 정답 근거로 활용 가능  
 쌍방조건(1-C)에서는 역과 대우가 모두 성립 — 한 방향만 허용하는 선택지가 오히려 오답

## 1-A 충분조건형

정의	P이면 Q이다. P가 성립하면 Q는 반드시 따라온다.
신호어	~하면 ~할 경우 ~하게 되면 ~한다면
오답 패턴	인과 역전 — Q이면 P이다(역)로 뒤집기 범위 확대 — P 없이도 Q가 성립한다고 주장

### 예시문

공기 중 산소 농도가 21% 이하로 떨어지면, 인체의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감소한다.

→ 울타리: '산소 농도 21% 이하' → '산소 포화도 급감'

→ The Stripper 적용: [산소 농도 하락] → [포화도 급감]

✗ 오답 예시: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면 공기 중 산소가 21% 이하가 된다' — 역방향 적용

✗ 오답 예시: '산소 농도와 무관하게 포화도가 감소할 수 있다' — 울타리 제거

## 1-B 필요조건형

정의	Q이려면 반드시 P이어야 한다. P 없이는 Q 불가.
신호어	오직 ~할 때만 ~해야만 ~할 수 있다 ~가 아니면 불가 ~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답 패턴	충분조건으로 오해 — P이면 Q이다(역)로 오독 올타리 제거 — P 없이도 Q 가능하다고 주장 '오직'의 폐쇄성 무력화

#### 예시문

법원이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 올타리: '고의·과실 입증' 없이는 '손해배상 명령' 불가

→ Shadow Tracker: 주어 = 법원, 조건 주체 = 피고

✗ 오답 예시: '고의·과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반드시 배상을 명한다' — 필요조건을 충분조건으로 오독

✗ 오답 예시: '고의가 없어도 결과가 중하면 배상이 가능하다' — '오직' 폐쇄성 무력화

## 1-C 쌍방조건형

정의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 두 명제가 동치 관계이다.
신호어	~이면 ~이고, ~이면 ~이다 ~일 때만 ~이다 ~와 ~는 동치이다 ~이면 곧 ~이다
오답 패턴	한 방향만 성립한다고 오해 (1-A로 축소)

동치 관계를 인과 관계로 오독  
역·이·대우 혼동

#### 예시문

이 이론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시민의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고, 정치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가 성숙한다.

→ 동치: [민주주의 성숙] ↔ [정치 참여율 상승]

→ 방향이 양쪽이므로 한쪽만 인정하는 선택지는 오답

✗ 오답 예시: '민주주의가 성숙해야만 참여율이 높아진다' — 한 방향만 인정

✗ 오답 예시: '참여율 상승이 민주주의 성숙의 원인이다' — 동치를 인과로 오독

## 1-D 가정 시뮬레이션형

정의	현실 데이터가 아닌 가상 데이터를 투입하여 결론을 도출. 현실과 혼합 주의.
신호어	만약 ~라면 ~라고 가정하면 ~한다고 하자 ~인 경우를 상정하면
오답 패턴	가정을 사실로 둔갑 — '~이다'로 단정 현실·가상 혼합 — 지문 본문 내용과 섞기 가정의 결론을 참으로 처리하는 오류

#### 예시문

만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p 이상 인상한다면, 가계 대출 수요는 급감하고 소비 위축이 가속화될 것이다.

→ 가상 데이터: '기준금리 5%p 이상 인상'

→ 이 결론은 현실이 아닌 가정 조건에서만 성립

✗ 오답 예시: '중앙은행은 금리를 5%p 인상했고 소비가 위축됐다' — 가정을 사실로 둔갑

✗ 오답 예시: '금리 인상은 항상 소비 위축을 유발한다' — 조건 범위 초과

## 1-E 전제 붕괴형

정의	결론의 기반이 되는 전제가 명시된 문장. 전제가 흔들리면 뒤의 모든 결론이 무너진다.
신호어	~를 전제로 하여 ~가 성립한다면 ~을 바탕으로 ~이 충족되는 경우
오답 패턴	전제 조건 무시 — 결론만 단독 인정 전제 붕괴 시에도 결론이 유효하다고 주장 전제를 결론으로 오독

### 예시문

데이터 이동권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정보 주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전제: '데이터 이동권 제도 확립'

→ 결론: '전송 요구 가능' ← 전제 없이는 성립 불가

✗ 오답 예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전제 무시

✗ 오답 예시: '데이터 이동권 확립이 곧 전송 요구권을 의미한다' — 전제를 결론으로

## 오독

### 전제란 무엇인가

전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참이어야 하는 숨겨진 조건

가정: 명시적으로 제시된 조건 ('만약 ~라면')

**전제는 지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지만 논증 구조 안에 잠재한다**

선지가 그 전제를 무너뜨리면 주장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전제 붕괴의 세 유형

- ① 전제 자체를 부정-주장이 의존하는 조건이 거짓임을 보임
- ② 전제의 범위를 벗어남-주장이 전제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됨
- ③ 전제와 결론 사이의 연결을 끊음-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이 따라오지 않음

→ 선지가 세 유형 중 하나를 범하면 전제 붕괴 오답이다

### 사례로 익히기

[예시 지문]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중이 줄어든다.

→ 숨겨진 전제: '식이 조절이 병행된다' / '운동 강도가 충분하다'

[선지 함정 예시]

'식사량을 늘려도 운동만 하면 체중이 줄어든다.'

→ '식이 조절 병행'이라는 전제를 붕괴 →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

'운동을 하루 5분만 해도 체중이 줄어든다.'

→ '충분한 운동 강도'라는 전제의 범위를 벗어남 → 전제 붕괴

수능 선지는 지문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전제만 살짝 건드린다

전제가 무너지면 주장도 무너진다는 것이 [1-E]의 핵심이다

**△ 수능 선지 함정 패턴**

전제를 명시적 조건(가정)과 혼동 — 지문에 없는 전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전제가 붕괴되었는데 결론이 여전히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오류

전제 붕괴와 반례 제시를 혼동 — 반례는 결론을 공격, 전제 붕괴는 근거를 공격